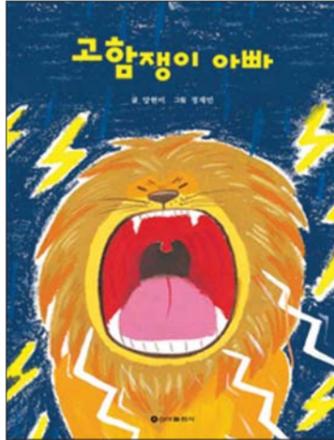


# 아빠 ·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화

양현미 작가, '고함쟁이 아빠' 출간

양현미 작가가 아빠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 '고함쟁이 아빠'를 출간했다.



양현미 작가가 아빠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림책 '고함쟁이 아빠'를 출간했다.

'고함쟁이 아빠'는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아빠 사자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아기 사자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이다. 작가에 따르면 아빠와 아이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하길 바라고, 독자는 아빠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아기 사자가 태어나자, 엄마는 젖을 먹이며 정성껏 보살핀다. 반면, 아빠는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본다. 어느 날, 아기 사자는 아빠가 가장 아끼는 호른을 굴리며 놀다 들켜서 야단을 맞는다. 아빠는 몹시 화를 내며 소리를 치고, 깜짝 놀란 아기 사자는 몸이 작아진다. 아빠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아기 사자는 점점 더 작아진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아빠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른다. 아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아기 사자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빠 손에 달렸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아빠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했다. 또 부모가 하는 말들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아이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때론 말이 주먹보다 무

서운 폭력이 되기도 하니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해." "공부나 해." "말대꾸하지 마." "넌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아이는 자신을 어떻게 느낄까? 상처 주는 말은 아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세상을 두렵게 만든다. 또한 작가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은 아이를 건강하게 따뜻하게 당당하게 성장시킨다"며 "아빠의 따뜻한 말을 먹고 경중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에게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빠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한편 양현미 작가는 건국대학교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제 35회 '소년문화' 동시부문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또 '전주사람, 전주 이야기' (공저)에 동화 '금송아지의 약속'을 발표했다. 특히, 동시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공저)를 내고, 동시로 인형극(4인 작가)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동시와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들을 만나는 동화구연, 생태놀이, 한국책놀이협회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작가는 한국반달문화원 전북지회장, 어울림작은도서관장을 맡고 있으며, 전북동시읽는모임, 전북아동문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국기 태권도 발전에 불교계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국기 태권도 발전 등에 대한 협력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남북 태권도 화합을 비롯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이 중심이 되어 태권도계가 화합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기

회가 되면 태권도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도장 운영의 어려움과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경쟁 등 안팎으로 당면한 과제들과 싸워 이겨내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기 태권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무원장님의 고견과 불교계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제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 진행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 'JAZZ에 빠진 영화 OST 그리고 탭댄스'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 움직임의 춤이 아닌 소리로 표현하는 '그라운드 잼'은 탭댄스의 대중화를 위하여 피아노, 베이스, 퍼커션, 보컬이 어우러진 라이브 연주에 탭댄스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자 하였으며, 탭댄스 리듬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박수로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갖는 등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또한 스윙재즈의 대표적인 곡 'Sing Sing Sing(싱싱싱)'을 비롯한 다양한 리듬의 영화를 악과 함께 다이나믹한 탭댄스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준비하였으며, 엔딩곡 '아리랑'에서는 재즈로 재해석된 국악 탭댄스로 움직임의 호모니가 절정을 이루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진단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태기 기자



관람권 예매는 6월 22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 고창군, 동리정사 운영 · 판소리 대중화 선도 집중

판소리 중흥 위한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가져

'대한민국 판소리성지' 고창군이 추진하는 동리정사 재현을 통한 판소리 중흥 프로젝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8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중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전주대학교 산

학협력단 흥성덕 교수팀)'을 열었다. 이번 용역은 조선 후기 판소리를 개작·정리했던 역사적 현장을 재현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고창군이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간보고회에서 성공적인 동리정사 운영, 판소

리 계승기반 구축, 판소리 대중화 선도를 위한 운영단체와 동리정사 공간 운영안을 제시했다. 또 동리대상·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고창 동리창곡원 설립, 동리 신재효 판소리 경연대회, 무형문화재 초빙 소리 아카데미, 판소리 '산공부' 지원, 동리레지던스 지원사업, 신재효 판소리 사설 작창 공모전 등의 판소리 계승기반을 구축하고 판소리 대중화 선도를 위한 판소리 동리 스테이 등의 세부 프로그램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기환 고창문화원장, 박종은 한국예총 고창지회장과 이만우 동리문화사업회 이사장, 김옥진 한국판소리보존회 고창군 지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리정사 재현사업을 통해 동리의 꿈을 실현하고 판소리 계승기반 구축을 통해 판소리 대중화 선도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동리 신재효 연구와 판소리 중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랑스러운 예향 고창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